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오 신앙의 신비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정말 그럴까?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다가도, 때로는 ‘이 조그만 밀떡이 정말 주님의 몸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경한 제 모습에 놀라며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만이 아니라 복음의 군중들에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군중들을 위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는 군중들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더욱 비장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선언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설명해 줄 수 없는,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실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나 비유적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체와 성혈은 우리의 이해나 수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찬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신앙의 신비여~”

물론 여기에서 신앙이란?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의심하고 갈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은 믿고 싶다는 우리의 원의願意와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본성으로 인해 때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 고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며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 성체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믿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약한 믿음마저도 당신의 사랑 안에 맡깁니다. 저희를 당신과 일치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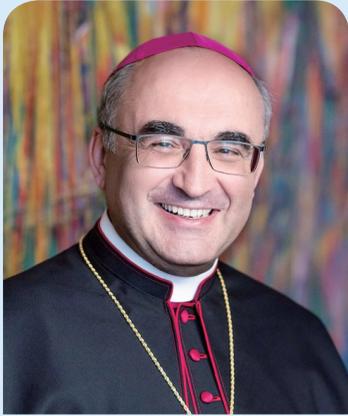
백남국 요한 신부 | 대산본당 주임



제 1 독 서 신명 8,2-3,14ㄴ-16ㄱ
화 답 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 2 독 서 1코린 10,16-17
복 음 요한 6,51-58

주일 진레

우리도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많은 거리들, 가게들에서, 심지어 도시 전체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해야만 했고 익숙했던 일상생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그 병에 걸렸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위기를 통찰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과 의식을 날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특히 병자들, 고령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 교회도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교구인 한국의 마산교구 내에서뿐 아니라 우리 그라츠-섹카우교구 내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신적으로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미사를 함께 드릴 수 없었던 그 슬픔은, 우리에게 가정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서로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많은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사목의 길들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성사 안에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것, 즉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결속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공동체 미사를 함께 드리지 못했던 것에서 생겨난 결핍은, 이제 우리가 엄격한 수칙에 따라 함께 성찬식을 다시 거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삶의 원천과 정점'(공의회 문헌, 인류의 빛 11)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심각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율과 종속 사이의 긴장은 해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창조물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하나의 영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틀림없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전 마산교구로부터 코로나 위기 속 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크나큰 금액이 우리 교구로 송금되었습니다(마산교구에서 어려운 이웃, 가난한 나라를 위해 써달라는 취지로 매년 그라츠로 송금하는 2만 불과 관련). 우리는 마산교구의 관대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구 카리타스는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활동하셨던 마리아 하이젠베르거(하 마리아) 여사의 구순 축하연 때(2020년 1월 25일), 최문성 마르코 신부님의 인솔로 마산에서 축하사절단이 방문해 주어 저희는 매우 기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의 위기와 질병으로 인한 속박의 시간 속에서 기도는 어떤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냅니다. 시편 저자가 청하는 희망의 기도에서 힘과 확신을 얻도록 합니다.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시편 6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매결연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내년 자매결연 50주년에 다시 친밀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희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명확한 이성, 선을 향한 상상력 그리고 큰 힘을 청합니다. 복자 구한선 타대오와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 축복이 가득히 내리시기를 저희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자매교구의 날
그라츠-섹카우 교구장



빌헬름 크라우트바셀 주교

마산·그리츠-섹카우 자매교구 역사

1971. 10. 15. 그리츠-섹카우 교구와 자매결연 체결(그리츠)
1972. 6. 자매교구의 날 선정(매년 6월 11일에 가까운 주일)
1976. 10. 마산교구 신학생(이제민) 그리츠 신학대학 첫 입학
1981. 6. 자매결연 10주년 그리츠 방문(장병화 주교 외 24명)
1988. 11. 그리츠-섹카우 교구장 요한 베버 주교 마산 방문
1991. 10. 마산교구 설정 25주년 그리츠 축하사절단 마산 방문(총대리 신부 외 7명)
1993. 6. 그리츠-섹카우 교구 설정 775주년 축하사절단 그리츠 방문(교구장 외 32명)
1995. 1. 제1차 자매교구 심포지엄(그리츠)
1999. 10. 제2차 자매교구 심포지엄(마산)
2002. 7. 박철현 신부 그리츠 현지사목 첫 발령
2002. 11. 마산교구 제4대 교구장 착좌식 그리츠 축하사절단 방문
2004. 10. 제3차 자매교구 심포지엄(그리츠)
2006. 10. 마산교구 설정 40주년 축하사절단 방문(보좌주교 외 16명)
2008. 6. 18. 제37회 자매교구의 날 그리츠 방문자 만남 행사(마산가톨릭교육관)
2011. 6. 제40회 자매교구의 날 그리츠 사절단 마산 방문
2011. 7.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유럽 성지순례단 그리츠 방문(31명) 그리츠 에곤 카펠라리 주교 저서 「거룩한 표징」 안명옥 주교 번역 출간본 증정
2013. 10. 13. 카펠라리 주교 저서 「하느님의 시간 속에 인간의 시간」 안명옥 주교 번역 출간
2015. 6. 그리츠-섹카우 교구 새 교구장 빌헬름 크리우트바셀 주교 착좌식 축하사절단 방문
2016. 6. 자매결연 45주년 축하행사 참석(그리츠)
2016. 10. 마산교구 설정 50주년 행사 그리츠 축하사절단 방문(교구장 외 18명)
2016. 10. 29. 공동프로젝트 대산성지 희망의 동산 조성 후 축복식(양 교구장 주교 공동집전)
2018. 6. 그리츠-섹카우 교구 설정 800주년 행사 축하사절단 방문(교구장 배기현 주교 외 28명)

그리츠-섹카우교구를 위한 기도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츠교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당신 안에 저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리츠교구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성령의 풍부한 열매로 축복해 주소서.

특히 부족한 사제성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츠교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그리츠교구가 발전하게 하소서.
또한 그리츠교구와 마산교구의 자매결연이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당신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구장 인준

사도행전 읽기 7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도행전은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에서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치유 기적들(9,32-43)

베드로는 사도행전 시작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리따와 야포에서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여기서 리따라는 마을은 현재 이스라엘 땅의 관문인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애네아스에게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데, 이 말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루카 5,24-26). 리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야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관문 항구로 쓰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타비타, 곧 도르카스라는 여제자를 되살려 주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딸을 되살려 주는 장면을 떠올려 줍니다(루카 8,49-51).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신의 사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10,1-11,18)

사도행전 저자 루카는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 이야기를 3인칭 작가 시점에서 담담하게 묘사한 뒤(10,1-33), 다시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합니다(11,1-18에). 동일한 사건을 짧은 시간 안에 두 번 반복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심 깊은 로마 백인대장 코르넬리우스는 카이사리아에 있을 때 환시를 봅니다. 이곳 카이사리아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머물던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야포에서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인대장이었지만 신심이 깊고,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고, 항상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교에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코르넬리우스도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환시 가운데 주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는 하느님께서 그의 선행을 보시고 은총을 내리셨음을 알리며, 야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명합니다(10,1-8).

베드로는 당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두장이란 모피 털이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야포에 이르렀을 때는 정오 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



도메니코 페티 <베드로의 환시, 1619>

하는 동안 무아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아경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네 귀퉁이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곧, 온 세상과 관련된 하느님의 뜻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지만 그것을 먹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라고 세 번 거듭 말하고,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어 올려집니다. 세 번 거듭 말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강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베드로는 환시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코르넬리우스를 만난 뒤 베드로는 즉시 환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코르넬리우스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설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밝힌 뒤, 공관 복음서의 형태에 따라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설명합니다(10,34-43).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그들은 신령한 언어로 말하며 하느님을 찬송하는데, 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푹니다(10,44-48).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11,1-18)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해 주면서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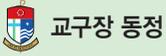
사실,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 이야기가 여기에서만 두 번 언급되는 것을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이방인을 그리스도교로 받아들이는 문제와 이방인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금지하는 음식 규정이 초대 교회 때 얼마나 첨예한 논쟁의 주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편지글, 특히 갈라 2,11-14에서도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다른 민족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올라오자 할례 받은 자들이 두려워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주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던 야고보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여전히 할례와 율법이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이에 반대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오로였기에 베드로를 따라 다른 유대인들과 바르나바까지 이방인과의 식사에 거리를 두자,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있음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

사도 11장의 베드로는 이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찌 되었건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받아들인 이 사건은 그리스도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물론 사도 공의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야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사도 15장), 코르넬리우스가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성령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느님께 선택받은 모든 이에게 내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교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과 할례 중심의 유대교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점을 장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오로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 출발점에 베드로가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곧, 이방인들의 복음화는 사도 바오로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관심사였음을, 모든 교회의 사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일 령



광주가톨릭대학 이사주교회의

일시: 6월 15일(월)

신학생 방학 인사

일시: 6월 16일(화)

장소: 교구청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6월 17일(수) 10:00

장소: 경화동성당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제449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6월 21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청년 신앙강좌

일시: 6월 28일(주일) 13:00~15: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강사: 이정림 신부(교구 청소년국장)

주제: 계시-인간에게 전네시는 하느님의 고백

신청: 6월 21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톡플러스친구 '청년부'

* 신청 후에만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접수 불가)

신청: 6월 17일(수)까지, 선착순 50명

준비물: 개인컵, 상장애식서, 미사준비

문의: 교구 연령연합회장 010·4581·5420

*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 되거나 참가자가 30명

이하일 경우 교육이 취소됩니다.

기 타

평화와 함께하는 2020 CPBC 창작성가제

주제: 생명·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성가

대상: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접수: 1인 1곡 출품, 신청서와 함께 7월 31일

(금)까지 메일 접수

시상: 대상(300만 원), 최우수상(150만 원),

우수상(100만 원), 장려상(50만 원)

* 자세한 공모 내용은 www.clak.or.kr/ 모바일앱(한국평협) 참조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

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가톨릭지도

자추천(간호, 심리, 사회복지, 경찰행정 등)

모집: 3,017명(수시 2,635명)

문의: 053·850·2580

제주 성지 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시: 7/24~26, 7/28~30, 8/7~9, 8/24~26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지도: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바오로 수도회)

문의: 064·805·9890

교구/본당

성유축성미사 - 사제성화의 날 행사

일시: 6월 19일(금) 11:00

장소: 양덕동성당

신학생 하계 연수

일시: 6월 16일(화)~18일(목) 2박 3일

장소: 합천

구역분과위원장 모임(진주지구)

일시: 6월 17일(수) 14:30

장소: 신안동성당

문의: 사무국 055·249·7022~3

구역분과위원장 모임(거제지구)

일시: 6월 18일(목) 14:30

장소: 고현성당

문의: 사무국 055·249·7022~3

위원회/기관/단체

제1차 가톨릭 상장애 봉사자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일시: 6월 26일(금) 14:00~28일(주일) 17:00

2차 - 8월 28일(금) 14:00~30일(주일) 17:00 예정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이순신로 115-758)

대상: 연령회 봉사자

교육비: 1인 16만 원(1인 1실 사용)

계좌: 농협 301-0226-0503-81, (재)마산교구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SM 수맥 흥(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키친,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일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10월 15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13일 390만원(공동경비 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일 림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 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 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5234호(우 04535)
 문의: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명례 교회사 강좌

내용: 1년 과정, 월 1회(6월부터)
 일정: 평일반 - 3주(화) 11:00
 (인물로 보는 한국교회사 “김대건·최양업 신부의 서한으로”)
 주말반 - 3주(토) 16:00 미사 후
 (세계교회사 입문 “그리스도교 형성과 발전”)
 수강료: 10만 원(봉사자 7만 원)
 문의: 명례성지 055·391·3206



기억할 선종 사제
 정삼규(요한 몬시뇰)
 1999년 6월 15일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21주기 추도미사

일시: 6월 15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정영규 신부 055·224·2009
 ▶ 미사 후 점심식사 준비 - 이화식당(묘지입구 부포사거리)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운행하던 버스 없음
 승용차 이용바람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월 20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5:9)

6·25전쟁 70주년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일시: 6월 25일(목) 19:30

장소: 사파동성당

주례 및 강론: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관리 필수

대중교통 이용바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기간: 6월 17일(수)~25일(목)

기도문: 가톨릭 기도서 109면/ 매일미사 191면

■ 매일밤 9시 주모경 기도로서 만나요.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사랑의집

김일주 요한비안네



사랑의집은 경남 의령군 지정면의 태부마을, 산골에 터를 잡고 1999년 6월 6일 미신고시설로 개원하였습니다. 이곳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여성지적장애인 20명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이 갖는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카리타스 정신을 실천하고자 2014년 3월 11일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 귀속되며 운영주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여성 지적장애인 축구단 의령 꽃미녀 FC, 여성 지적장애인 핸드벨 소리샘벨콰이어, 마라톤 동아리 진달래회 등 다양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축구팀은 스페셜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핸드벨 연주단은 스페셜올림픽 폐막식 오프닝 공연에 초청되어 111개국 5,0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동아리 회원들은 매년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단으로 선발되어 세계 각국의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여성 지적장애인 최초로 풀코스를 완주하며 각종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매번 '최초!',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화 사업들을 추진해온 결과, 2019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전체 A등급(전항목 A)을 기록하며 최우수 시설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랑의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2020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9월 18일 마산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제2회 소리샘벨콰이어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사랑의집 055·572·8101
- ▶ 후원계좌
농협(사랑의집)
803089-51-017934

